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neti seals Daewoo \$330m WTIV while chasing Jones Act newbuilding

지난해 8월 LOI(건조의향서)체결이 보도됐던 대우조선해양의 WTIV(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에 대한 발주처의 요청 사양이 상향되면서 선가가 3.3억달러로 올랐다고 보도됨. 당초 2.65~2.9억달러로 보도됐으며, 인도기한은 2023년이라고 알려진바 있음. (TradeWinds)

MSC charters 11 LNG-fuelled containerships from Eastern Pacific Shipping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하고 있는 15,300TEU급 LNG추진 컨테이너선 11척이 MSC(Mediterranean Shipping Co.)에 최소 18년간 용선된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EPS(Eastern Pacific Shipping)가 발주한 선박으로 납기는 2022~23년으로 알려짐. (TradeWinds)

Repsol selects Hyundai LNG Shipping for single newbuilding deal

현대LNG해운이 스페인의 에너지기업 Repsol이 실시한 LNG선 10년 용선 입찰에서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됐다고 보도됨. Repsol은 현재 미국 소재 Calcasieu Pass 수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LNG수송에 투입할 선박을 추가로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DNV expects LNG bunker consumption to quadruple by 2024

선급협회 DNV에 따르면, 해양연료로써 LNG 소비량이 2024년까지 4배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2020년 기준 LNG추진선대의 LNG소비량은 1MTPA였으며, 2024년에는 3.5MTPA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JERA and Yara tie up on blue ammonia supply for shipping

일본의 에너지 수출입 업체인 JERA가 비료생산업체 Yara International과 협업하여 블루암모니아를 생산하여 조선/해양산업에 공급할 방안을 모색한다고 보도됨. 두 회사는 MOU를 체결하고 세계 최대의 암모니아 생산업체인 Yara의 생산능력을 활용하고 블루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TradeWinds)

4월 글로벌 수주 통계 발표

Clarksons에 따르면 4월 전 세계 선박 수주는 305만CGT(98척)으로 중국이 164만CGT(53척, 54%)로 1위, 한국이 119만CGT(34척, 39%)로 2위, 핀란드가 8만CGT(2척, 3%)로 3위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1~4월 누계 수주량은 1,543CGT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